2021 년 12 월 01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세헌 02)3787-5150 saehun.kim@kiwoom.com

미 증시,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가속화 지지 발언에 낙폭 확대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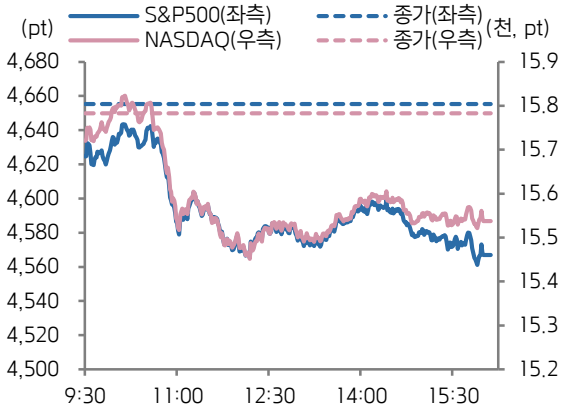
30 일(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오미크론 관련 불안심리가 진정되며 하방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파월의장의 "일시적" 인플레이션 용어 사용 철회, 12 월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 발언이 위험회피심리를 재차 확산시킴에 따라 하락 마감(다우 -1.86%, S&P500 -1.9%, 나스닥 -1.55%, 러셀 2000 -1.92%).

오전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유럽, 브라질 등 오미크론 확진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축소되는 흐름을 보임. 11 월 시카고 PMI 지표는 61.8pt(예상 67.0pt, 전월 68.4pt)에 발표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도 109.5pt(예상 111.0pt, 전월 111.6pt)도 둔화됨. 모더나와 화이자의 CEO 들이 기존 백신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이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 파월 의장은 더욱 확대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여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 12 월 FOMC 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몇 달 일찍" 종료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언급.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이라는 표현에서 물어날 시기라고 언급한 점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탠스가 한층 더 강화됨.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2 년물 금리가 0.43% 수준에서 0.56%로 급등하는 등 통화정책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며 주식시장은 낙폭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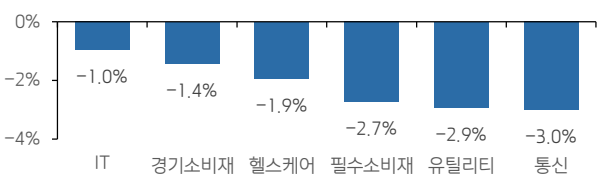
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스(-3.0%), 유틸리티(-2.9%), 필수소비재(-2.7%)의 낙폭이 가장 컸고, IT(-1.0%), 경기소비재(-1.4%), 헬스케어(-1.9%)의 낙폭이 가장 작았음. 반도체지수(-2.0%)는 전일 강한 반등 후 하락했고, 항공 섹터(-0.4%)의 약세 흐름은 지속됨. 한편 애플(+3.2%)은 위험자산 회피 기조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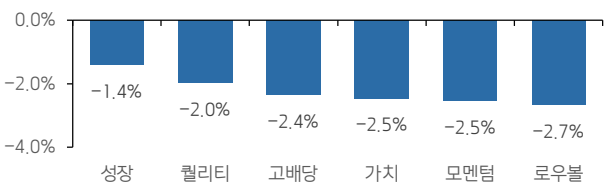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67.00	-1.9%	USD/KRW	1,187.85	-0.43%
NASDAQ	15,537.69	-1.55%	달러 지수	95.90	-0.46%
다우	34,483.72	-1.86%	EUR/USD	1.13	+0.39%
VIX	27.19	+18.42%	USD/CNH	6.37	-0.33%
러셀 2000	2,198.91	-1.92%	USD/JPY	113.16	-0.33%
필라. 반도체	3,833.22	-1.9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843.15	-3.17%	국고채 3 년	1.787	-6bp
유럽, ETFs			국고채 10 년	2.204	-6.6bp
Eurostoxx50	4,063.06	-1.13%	미국 국채 2 년	0.559	+7.5bp
MSCI 전세계 지수	738.18	+0.63%	미국 국채 10 년	1.451	-4.8bp
MSCI DM 지수	3,155.73	+0.7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18.99	-0.34%	WTI	66.93	-4.32%
MSCI 한국 ETF	75.73	-0.84%	금	1774.4	-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3.2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오미크론 관련 뉴스 플로우 2. 전거래일 낙폭 과대주들의 기술적 매수세 유입 가능성 3. 시장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오미크론이라는 돌발 악재 등장으로 시장에서는 12 월 FOMC 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했었음. 지난 26 일 이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22 년 6 월 FOMC 금리인상확률은 70%대에서 40%대까지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를 유추해볼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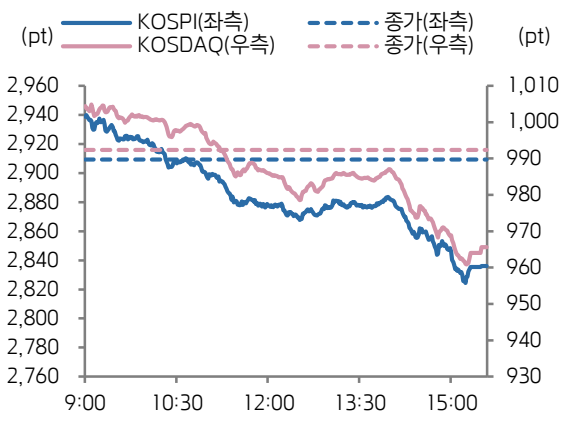
그러나 파월의장은 상원 발언에서 12 월 FOMC 에서의 테이퍼링 가속화는 적절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그간 인플레이션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철회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매파로 돌변한 듯한 파월의장의 발언이 전거래일 미국 증시의 혼란을 촉발했던 것으로 판단.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일시적" 인플레이션 기준이 정량적(또는 경제학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 이렇다 보니 현재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정책 당국자, 시장참여자, 정치권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추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파월의장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철회했던 것으로 판단.

또한 현재 파월 의장은 12 월 FOMC 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하다는 게 적절하다고 밝히면서도, 오미크론은 연준의 경제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오미크론과 관련해 향후 7 일~10 일 이내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감안 시, 12 월 FOMC 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주요 제약사들이나 연준이 언급한 기간(1~2 주) 즉 12 월 FOMC 전까지는 관련 불확실성을 가지고 갈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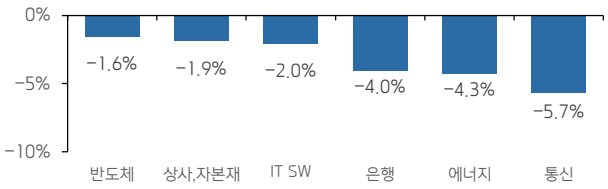
이를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도 재차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여타 증시 대비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 및 저점 매수세 유입,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을 감안 시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1)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는 오미크론 사태 이전에 시장에서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었다는 점, 2) 오미크론 관련 데이터 부재에도 코로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있음. 위험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고 매도 대응하기 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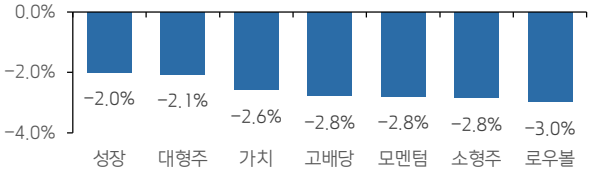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